

혼인서약서

황금같은 주말 오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

현준: 2년전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 저를 보러 달려와준 와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

지민: 2년전 멀리 있지만 한걸음에 달려가서 보고 싶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

현준: 지민이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에 반해 만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

지민: 현준이의 성실함과 유머러스함에 반해 만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

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.

신랑 신현준, 신부 성지민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

현준: 여행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그녀만의 하나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
지민: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과 함께 골프 수영 테니스 여러 운동을 섭렵하겠습니다.

현준: 비염이 있는 그녀를 위해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로봇청소기가 되겠습니다.

지민: 가정과 일과 공부를 위해 애쓰는 남편을 위해 영양제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

현준: 아내를 직속상관이라 생각하고 아내의 명령에 복명하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.

지민: 다정한 아내가 되어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.

함께하는 모든 날들이 기대되고 설렙니다. 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될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.